

- 주요 뉴스: 미국과 중국의 7~8월 주요 경제지표, 경기 둔화 신호를 발신
 - 블룸버그 조사, 유로존 경기침체 확률은 60%. '20년 11월 이후 최고치
 - 중국 인민은행, 1년 만기 중가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 인하. 경기부진 등을 반영
 - 일본 2/4분기 성장률, 2.2%로 전기비 향상. 대외여건 악화 등은 향후 불안 요인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경기 둔화 우려와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기대가 상충

주가 상승[+0.4%], 달러화 강세[+0.8%], 금리 하락[-4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장기금리 하락에 따른 매수세 강화 등이 배경
유로 Stoxx600지수는 소비재 및 헬스케어 관련주 강세 등으로 0.3%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중국 경제지표 부진 등이 원인
유로화가치는 1.0% 하락, 엔화는 0.1% 절상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경제성장 둔화 가능성 등이 영향
독일은 미국 채권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9bp 하락

※ 원/달러 1M NDF환율(1313.1원, +10.7원) 0.8% 상승, 한국 CDS 상승

		8/15일	8/12일	전일대비			8/15일	8/12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297.1	4,280.2	0.40%	국채 금리 10y	미국	2.79%	2.83%	-4bp
	유럽	442.35	440.87	0.34%		독일	0.90%	0.99%	-9bp
	중국	3,276.1	3,276.9	-0.02%	CDS 5y	한국	35bp	34bp	1bp
	일본	28,872	28,547	1.14%		중국	72bp	71bp	1bp
	한국	휴장	2,527.9	-	위험 지표	EMBI+	-	413	-
환율	달러지수	106.51	105.63	0.83%		VIX	19.95	19.53	2.15%
	유로화	1.0160	1.0259	-0.97%		WTI유	89.41	92.09	-2.91%
	엔화	133.32	133.42	0.08%	원자재	구리	361.8	366.9	-1.39%
	위안화	6.7735	6.7428	-0.45%		금	1,779.7	1,802.4	-1.26%
	원화	휴장	1,302.4	-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과 중국의 7~8월 주요 경제지표, 경기 둔화 신호를 발신

- 미국의 8월 NAHB(미국주택건설협회) 주택시장지수는 49를 기록하며 '20년 5월 이후 최저. 이는 원자재 가격 급등과 모기지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주택수요 약화 등에 기인. 다만 NAHB의 Robert Dietz는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가능성 등에 따른 장기금리 하락 등은 주택수요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평가
- 8월 뉴욕주 제조업지수 역시 -31.3을 나타내 전월(11.1) 대비 떨어졌으며, 이는 '20년 4월 이후 최대폭 하락. 특히 세부항목 가운데 신규수주 및 운송이 부진하여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 Pictet Wealth Management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신규수주가 과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 한편 중국의 7월 소매매출, 산업생산, 건설투자 등도 저조한 모습. 7월 소매매출은 전년동월비 2.7% 늘어 전월(3.1%) 및 예상치(5.0%) 대비 낮은 수준.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및 자동차 판매 둔화 등이 원인이라고 발언
- 산업생산도 전년동월비 3.8% 증가해 전월(3.9%) 및 예상치(4.6%)와 비교하여 부진. Capital Economics의 Julian Evans-Pritchard는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일시적 효과 감소와 건설활동 위축 등이 성장 둔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
- 아울러 로이터는 국가통계국 자료를 분석한 후 7월 건설부문 투자가 전년동월비 12.3% 감소했다고 보도. 또한 바닥면적(floor area) 기준 신규 건설착공은 45.4% 급감하여 '13년 2월 이후 최대폭 감소.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체 인사는 공공부문 제외 시 모든 건설기업이 생존에 주력하고 있다고 언급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JPMorgan과 Morgan Stanley, 향후 미국 주가 전망 관련 상이한 의견 제시

- JPMorgan의 Mislav Matejka는 저점 대비 20% 상승한 나스닥 지수가 연말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최근의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 및 양호한 수준의 고용 증가 등은 주가 상승에 긍정적이라고 평가
- 반면 Morgan Stanley의 Michael Wilson은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 향후 기업이익 감소 및 경기 둔화 가능성 등으로 향후 수개월은 주가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

■ 블룸버그 조사, 유로존 경기침체 확률은 60%. '20년 11월 이후 최고치

-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확률은 60%로 이전 조사(45%) 대비 상승. 경제학자들은 높은 인플레이션,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 차질 등으로 금년 말부터 경기침체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

■ 독일 경제장관, 가스 부과금 징수하지 않으면 에너지 시장은 붕괴

- 하벡 장관은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에너지 공급 과정에서 관련 기업들의 비용부담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 가스 부과금 규모는 4인 가족 기준 연간 400~600유로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

■ 중국 인민은행,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 인하. 경기부진 등을 반영

- 해당 금리를 0.1%p 하향 조정(2.85%→2.75%). 7일물 역레포 금리도 2.10%에서 2.00%로 낮춰서 제시.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은행시스템 내에 유동성이 합리적 수준에서 충분히(reasonably ample)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
- ANZ의 Xing Zhaopeng은 당국이 예상치 못한 금리인하에 나섰으며, 이는 최근 부진한 경제지표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 등에 기인한다고 언급. Mizuho Bank의 Ken Cheung은 인민은행이 수요 촉진을 유도하고 있다고 진단

■ 일본 2/4분기 성장률, 2.2%로 전기비 향상. 대외여건 악화 등은 향후 불안 요인

- 해당 분기 성장률은 2.2%(연율 환산)로 전기(0.1%) 대비 상승했으나 예상치(2.5%) 하회. 소비가 상대적으로 양호했으나 코로나 19 감염 재확산, 러-우 전쟁, 원자재 가격의 큰 폭 상승 등이 성장 저해 요인으로 작용
- 이토추 경제연구소의 아츠시 타케다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와 자본지출이 3/4분기에도 경제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나, 인플레이션에 따른 가계지출 둔화 등으로 성장 동력이 기대만큼 강력하지 못할 수 있다고 평가. 또한 수출도 부진할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8/15 현지시각 기준)

- 중국 7월 고정자산투자(전년동월비): 5.7%, 6월(6.1%), 예상치(6.2%)
- 중국 7월 신규주택가격지수(전년동월비): -0.9%, 6월(-0.5%), 예상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연준의 정책금리, 달러화 강세 및 양적긴축 효과로 중립수준에 도달 - Financial Times**
(Why the Fed might be at 'neutral' already on monetary policy)
 - 최근 연준 파월 의장은 정책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에 도달했다고 언급. 이에 대해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와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비판적인 시각을 제기. 이는 현 정책금리 수준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시키기에 미흡하다는 평가에 기인
 - 하지만 연초 이후 달러화 가치의 10% 상승과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양적긴축 등은 1.0%p의 정책금리 인상 효과를 유발. 아울러 장단기 국채금리는 이미 연준의 긴축 기조를 반영. 연준은 이제 이러한 정보를 대중과 공유하는 것이 적절
- **세계 원유 수요 전망, 시장 기대만큼 강력하지 않을 가능성 - 블룸버그**
(Oil Demand Forecasts Aren't as Bullish as They Seem)
 - 최근 IEA는 금년 일일 원유 수요 전망을 이전보다 52만배럴 상향. 그러나 이로 인해 무조건적인 유가 상승을 기대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IEA가 추정한 금년 원유 수요는 일일 9970만배럴로 OPEC과 EIA에서 하향 조정(각각 -20만배럴, -30만배럴)하여 제시한 전망치(각각 9940만배럴, 1억배럴)와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
 - 실제로 최근 원유 수요 증가세도 경제활동 재개의 영향이 감소하면서 점차 약화. 아울러 유럽의 천연가스 비축량 확대, 경제성장 부진에 따른 원유 수요 둔화 등도 지속될 소지. 다만 유럽 내 에너지 불안은 수요 증가 요인
- **미국의 노동공급 부족, 인플레이션 억제를 어렵게 하여 경기연착륙 저해할 우려 - WSJ**
(Labor Shortage Is Vexing Challenge for U.S. Economy)
- **미국 주택시장의 향방,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통화정책이 좌우 - 블룸버그**
(Will Housing Prices Flatten — or Collapse?)
- **중국 인민은행의 예상 밖 MLF 금리인상, 경기전망이 매우 부정적임을 시사 - 블룸버그**
(PBOC Surprise Suggests China's Outlook Is Truly Dire)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